

개최하지도 않는 위원회 경비 증액·다문화가정 현황 파악 없이 일률지원...

도교육청 허술·방만 예산편성 도마위

전남도의회 예결위 오늘까지 예산안 심사

전남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만한 예산 편성으로 열악한 재정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돼 의회 예결위 심사 과정이 주목된다.

13일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은 213개의 위원회 가운데 올해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58개(27.2%)에 이르면서 위원회 관련 비용으

로 책정된 5200만원의 예산 중 2700만원만 사용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내년 위원회 경비로 올해보다 5100만원이 늘어난 1억 3000만원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때문에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실효성 없는 위원회의 과감한 폐지를 통해 예산 절감을 이뤄 내실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초·중학교 체합학습비로 책정한 60억4300만원의 예산은 경남도교

육청이 비슷한 사안으로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점을 감안해 재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관일률적인 예산 책정도 도마위에 올랐다.

도교육청은 내년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 사업을 위해 42억7000만원을 편성했지만 화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교육지원청별로 1억9200만원씩 책정, 지원청별 대상 학생 수를 고려하지 않은 '편의주의적 책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장만체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새롭게 1억1000만원이 편성된 '초등수업분석실 설치'사업도 교원이 자신의 수업 동영상 제작하고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지는 취지에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22개 지역교육지원청당 500만원씩 일률적으로 편성, 사업에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게 도의회측 설명이다.

전남도의회 예결위원회는 이같은 사전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14일까지 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생생 자치 전남도 간부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전국 12위 우수한 일 부당업무지시 내용·이행률 철저히 조사”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최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박 지사는 13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매년 들쭉날쭉해 정확성에 의문이 있지만 깜짝 놀랐다”고 전제한 뒤 “올해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2위를 차지한 것은 우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종합청렴도(8.98점) 4위에 올랐지만 이번 측정에서는 8.38점에 머물러 16개 시·도 중 12위로 크게 하락했다.

박 지사는 이어 감사관실에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를 면밀히 분석, 전 시·국·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박 지사는 특히 외부청렴도(8.57점)는 9위인 반면, 내부 직원이 평가한 청렴도가 7.84점(13위)으로 ‘미

흡’으로 분류된 데 강한 불만을 표했다. 내부 청렴도 평가에 업무지시의 공정성과 인사업무 등의 업무청렴 지수가 포함된 점을 감안한 듯 “무슨 지시가 공정하지 않은지, 부당한 지시는 뭐가 있었는지 면밀히 분석해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지사 자신을 포함, 실·국장, 과장들의 지시가 대부분 빈민 관공리실에 올해 몇 건의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이행률은 얼마나 되는지를 함께 파악할 것도 지시했다. “빨리 해라. 인사가 있다”고 했고 “이행률이 낮을 경우 실·국장부터 책임을 물겠다”고도 했다.

박 지사는 이어 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지시한 뒤 광주시와의 공조를 취할 계획이라는 답변에 “합평 빛그린산단이면 명분도 좋지 않느냐”고 조언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가톨릭신자’ 이회창 추기경·사제단 비판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13일 4대강 사업 및 북한 상황을 둘러싼 정진석 추기경과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하 사제단) 등 천주교 내홍과 관련, 양비론을 내세워 양측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추기경의 4대강 사업에 분명하게 반대하는 것을 표명했는데도 반대한 것은 아니라는 추기경의 말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결과가 잘못 되면 원상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결과를 보자는 부분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정 추기경을 우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추기경의 발언을 궤변이라고 비난한 사제단에 대해 “교회 내 이견과 갈등을 정치 문제화하려는 의도적 행위로, 사제이면 사제답게 행동하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특히 사제단의 ‘골수 반공주의자’ 언급에 대해 “그대들이 시위하고 소리칠 곳은 북한의 강제수용소 앞이나 탄압의 현장이다. 사제들이 정말로 하느님 말씀과 정의의 위해 순교할 용기가 있다면 그곳이 바로 순교할 자리”라고 성토했다.

/박지을기자 jkpark@

시대를 고민하는 사제들의 기도와 호소

2010년 12월 13일(월)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정진석 추기경의 4대강 관련 발언에 대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1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천주교 전국 교구 원로사제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혼란과 교회 분열에 대한 정추기경의 책임을 묻고 있다.

원로사제들 “과오·독단 鄭추기경 용퇴해야”

천주교 원로사제 20여명이 정진석 서울대교구장의 4대강 관련 발언을 비판하며 서울대교구장직 용퇴를 촉구하는 한편 4대강 사업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로사제들은 13일 오전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시대를 고민하는 사제들의 기도와 호소’라는 성명에서 “추기경이 주교단 전체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결론에 위배되는 해석으로 사회적 혼란과 교회 분열을 일으킨 것은 분명히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정 추기경은 동료 주교들과 평신도, 수도자, 사제에게 응서를 구하고 용퇴의 결단

으로 그 진정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천주교계에서 추기경의 용퇴를 촉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울대교구 합세용 신부는 “추기경직은 자의적으로 물러날 수가 없는 것인만큼 서울대교구장 직에서 용퇴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원로사제들은 또 성명에서 “정 추기경의 말씀에 부끄럽고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발표한 성명서의 취지에 지지와 공감을 표시하며, 우리는 양심과 이성에 비추어 보

더라도 4대강 사업은 중단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병삼 몬시뇰, 문정현 신부 등 원로사제 10여명이 참석했고 성명서에는 25명이 연대 서명했다.

한편 정 추기경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주교단에서는 4대강 사업이 자연과 파괴와 난개발의 위험이 보인다고 했다. 위험이 보인다고 했으니 반대하는 소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위험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개발하도록 노력하라는 적극적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연합뉴스

광주시의회 ‘의로운 시민 예우 조례안’ 통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13일 손재홍 의원(민주당·동구 2)이 대표 발의한 ‘의로운 시민 예우 조례안’을 통과시켜 분회의에 넘겼다.

이 조례안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

해를 당한 사람과 가족,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망자의 유족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2000만원을 지급할 수 있고, 부상자나 피해자의 정도에 따라 1500만 원이하의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로운 시민과 가족은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초청하고 시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조례안은 22일 열린 제193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손재홍 의원은 “광주가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 의로운 행위를 한 시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것을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새로운 사회 기풍을 만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방글라데시 근로자 시위 4명 사망 250명 부상

한국 의류업체서 촉발...韓 업체 인명피해 없어

방글라데시 남동부 치타공 지역의 한국 의류업체 공장에서 촉발된 섬유 근로자들의 저임금 항의 시위가 다른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북쪽에 있는 섬유 공장 밀집지역인 가지푸르에서는 13일(현지시간) 40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길을 막은 채 연좌농성을 벌였다.

가지푸르 경찰은 다카와 방글라데시 북부를 잇는 주요 고속도로가 시위 때문에 차단됐으며 임금 체제가 새롭게 도입된 이후 임금 인상에서 제외될 것을 두려워하는 숙련공들이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지푸르 남동쪽에 있는 치타공에서는 전날 한국 의류업체인 영원무역

공장 등의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이틀째 시위를 벌이면서 경찰과 시위대 간 격한 충돌로 4명이 사망하고 250여명이 부상했으며 다카에서도 시위가 잇따르면서 수십 명이 부상했다.

치타공 시위에서 30명이 체포됐으며 3천 명 이상이 시위 가담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다.

방글라데시 섬유 근로자들은 정부가 지난달 최저임금 인상 조치를 적용하면서 최저숙련도 등급 근로자들의 임금은 올랐으나 숙련공들 임금은 오르지 않은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최저숙련도 등급 근로자들의 월 최저임금을 3천 타카(약 4만8400원)로 2006년 수준보

다 80%가량 인상토록 의무화했지만 숙련공들의 임금 인상은 각 회사에 권고 사항으로 제시했다. 방글라데시 섬유 공장 중 대다수는 알타르, H&M, 리바이스 등 유명 의류업체에 납품할 뜻을 생산한다.

한편 외교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 이틀간 치타공 지역에 있는 한국 업체 23개 가운데 6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 한국인의 인명피해는 없지만 6개 업체에서 폭력시위로 차량, 문, 유리창, 집기 등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영원무역은 이날 근로자들의 폭력사태로 폐쇄했던 방글라데시 공장 일부를 재가동하기 시작했고, 14일부터는 전면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복구이, 전복스팀찜, 전복문어찜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의들께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 양식장 직영 도·소매
- | 활전복 전국 택배 가능 합니다.
- |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 |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일곡지구 연초제조창, 롯데칠성음료, 코카콜라, 해태제과, SK주유소, 한양아파트, 현대아파트, 금강아파트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

12월 4일 새롭게 OPEN 했습니다!

오실맨 2가실맨 4!

부킹성공 120%

최진희 12월중 출연예정

입장료 무료!!

롯데클라빅

금남전자상가 지하층 롯데백화점 후문쪽

EVENT!

연말연시 모임 단체 가격할인

최신 인테리어 시설완비

최신 인테리어 시설완비, 대형룸 완비, 최신시설에 깨끗한 내부 시설 및 인테리어, 모임 단체 환영, 최대 100명 수용 가능

노래하는 음악 홀 카라

예약문의 | 010 - 6727 - 3966
위치 | 대인동 우체국청사부근